

투데이

10월2일 넘기면 U대회 수영장 국비 차질

내년 예산안 마감일... 임지논란 끝내야

'자체 예산으로 준비' 쇠약 시나리오도

2015년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수영장 임지와 관련된 과열 논란이 광주U대회 성공 개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음달 '광주U대회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간이 예비)' 최종 결과를 제출하면 곧바로 중앙부처에 2012년에 필요한 국비 보조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그 때까지 지역 내 수영장의 임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쇠약의 경우 내년에 국비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광주U대회를 준비해야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주 자체 임지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한 뒤 현재 진행되고 있는 KDI의 간이 예비에 이를 반영시켜 다음달 말까지 최종 예산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오는 10월2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정부부처 2012년 예산안 마감시한까지 수영장 등 신규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광주U대회 최종 예산안이 제출되지 못할 경우 내년 국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수영장 임지는 애초 북구 우산동, 광산구 수완지구 등이 거론됐다"며

"그러나 높은 부지 가격으로 인해 입지 변경을 검토하면서 중 KDI 측의 요청에 따라 임지의 수영장을 남구 송하동 송암공원 일대, 디복적체육관은 광산구 광주여대를 예시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간이 예비 중간 보고서에서도 구체적인 입지에 대한 거론은 없으며, 다음달 종으로 지역 내에서 결정될 최종입지를 KDI의 최종보고서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한 만큼 쇠약의 경우 내년도에는 국비 없이 시비로만 시설 개보수, 신규시설 설계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 예비 중 신규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내 논란과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국제대회를 위해 간이 예비를 신청한 후 시설 입지를 두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이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

다"고 "이 같은 선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며 아무튼 이달 말에는 임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I의 광주U대회 간이 예비 중간보고서에 광주U대회의 총사업비는 지난해 요구한 7341억원보다 1219억원이 증액된 856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애초 광주U대회 조직위가 제출한 1조116억원에서 1556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조직위는 최종예산은 향후 증액될 수 있는 입장이다.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수영장 임지 논란으로 인해 전반적인 광주U대회 준비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여론이 정해진다면 지난해 설계비 등으로 30억 원을 반영시켜놓은 만큼 국비 지원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잘 전해주오’

‘북한 수해 동포 지원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광주시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북녘 수해동포 긴급 지원 물자 환송식’을 가졌다. 이날 지원된 물품은 밀가루 54t이며, 광주시민들의 성금 3400만원으로 마련됐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광주 지하철 2호선 변경 승인 지역

기획재정부 의견 제출 늦어져 전체 일정 차질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확정 및 고시가 일부 정부부처 간 업무처리 지연으로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설비위원회에 상정돼 이달 초까지 심의의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최종 의견제출이 늦어지면서 승인 고시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의 의견

없이는 승인할 수 없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업무 폭주를 이유로 의견제출을 미루고 있다.

다음달부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가 본격화될 경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조기 확정고시는 더 연기될 수밖에 없어 이달 2호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와 TF팀 구성, 공청회와 시민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건설방식과 착공시기 등을 결정하려던 광주시의 계획도 차

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 제출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상 다음달 내 승인하고 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경안은 기존 27.4km에서 41.7km로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안 고시 후 광주시는 전체 연장과 노선은 그대로 두는 대신 건설방식이 지상고가와 2011년 맡은 착공시기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등산-호남대 터널’ 명칭 합의

광주-부안 고속도로 중 광주 광산구 어등산을 통과하는 터널 명칭이 ‘어등산-호남대 터널’로 확정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터널의 명칭을 어등산-호남대 터널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광산구·호남대와 협의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오는 9월 6일까지 광산구청·호남대·한국도로공사 간 명칭 합의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어 8월까지 표지판 명칭 표기를 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또 전국도로현황

시스템에도 터널명칭을 등록할 계획이다.

이 터널은 애초 도로공사는 명칭을 ‘호남대터널’로 잠정 결정했으나 지난 2008년 5월 개통 당시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어등산을 지나는 만큼 어등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칭 논란이 비롯됐다. 이에 그해 6월 광산시민단체가 종재안으로 ‘어등산 호남대터널’을 제안하자, 호남대는 이를 전격 수용해 장병완 당시 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구의회 일부 의원과 단체에서 ‘어등산 터널’을 고수해 갈등을 빚어왔다.

국내 주요 재벌가(家) 남성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고, 특히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30일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 사항(을 해 초 기준)을 파악한 결과, 아직 20대로 미정인 경우를 제외한 115명 중 면제자는 총 37명으로 면제율은 32.2%에 달했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초 조사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29.3%)보다 2.9%포인트 높은 것이다.

재벌가 남성들은 짧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았다. 32~41세(1970년대생)에서 조사 대상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율은 41.7%로 상승했다.

/연합뉴스

“10월 착공 새 야구장, 명품구장 될 것”

姜시장 ‘북구민과 대화’

강운태 광주시장은 30일 “오는 10월 착공하는 야구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이름답고 편안한 명품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새 야구장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건축물이 될 것이며 야구장 일대는 문화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야구 경기가 끝나면 시민들이 한바탕 어우러질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농림어가 규모 전국 최고

전남지역의 농림어가(農林漁家)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지역은 가장 많은 행정리를 보유,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시군별 어가 분포도 완도가 4570가구로 가장 많았고 여수(3889가구)가 세번째였다.

전남은 임가 규모도 1만4200가구로 경북(2만3600가구)에 이어 전국 두번째였다.

전남은 또 전국 3만6498개 행정리 중 가장 많은 6만6500개(18.2%)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5%를 차지, 경북(101만4000가구·20%)에 비해 가구 비중으로는 가장 많았다.

어가 규모는 전남이 2만18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시군별 어가 분포도 완도가 4570가구로 가장 많았고 여수(3889가구)가 세번째였다.

전남은 임가 규모도 1만4200가구로 경북(2만3600가구)에 이어 전국 두번째였다.

전남은 또 전국 3만6498개 행정리 중 가장 많은 6만6500개(18.2%)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CC 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의 명문골프장인 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 합니다.

1. 모집요강

모집부분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식료팀 (정규직)	남, 여 (00명)	조리사	경력, 신입
		웨이터	
		웨이츄어스	
		주부사원	

2. 채용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3. 복지제도

기술사 제공, 1일3식, 4대보험, 연차휴가, 주1회 휴무 허가 및 동계휴가, 교통비지원, 기업상해보험가입 등

4. 접수방법

- 우편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국창리 산1-6번지 경영지원팀
- 팩스 : 061-320-7710
- E-mail : seungtae01@naver.com
- 전화 : 061-320-7717(오승태)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 교육과학기술부(2010-1호) 국가공인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13기)	광주교육대학교(제4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1. 9. 2(금) 09:10(2,1급) · 오후반: 2011. 9. 2(금) 14:10(3,2급)	· 토요일 오전반: 2011. 9. 10(토) 09:10(3,2급) · 오후반: 2011. 9. 10(토) 14:10(특급)
모집기간	2011. 8. 1(월)~9. 3(토)	2011. 8. 1(월)~9. 10(토)
수업기간	2011. 9. 2(금)~2012. 2. 11(토) (6개월 96시간)	2011. 9. 8(목)~2012. 2. 18(토) (6개월 96시간)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 강 력	₩340,000 (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340,000 (예금주: 광주교대) •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평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워크샵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워크샵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한글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N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U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화된 경제관리 체계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1억원~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